

# 함께자리

천양희  
시인

함께자리  
천양희

그 자리에

누구와 함께 있으면

너는 완전히

그와 함께 있었다

세상에 오직

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

언제나 같은 밝기로

빛나는 별처럼

좋은 한 번 울릴 때

여러 번 침묵을 뺏는다

그 자리에  
누구와 함께 있으면  
너는 완전히  
그와 함께 있었다  
세상에 오직  
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 
언제나 같은 밝기로  
빛나는 별처럼  
좋은 한 번 울릴 때  
여러 번 침묵을 뺏는다

# 울음 악보

천양희  
시인

울음 악보 천양희

한 그루 울음

울음 한 그루는 돌레가 없으므로

안을 수가 없다

일생을 울다 보낸

저 물결도

흐르고 흘러 수없이 흘러도

울음 앞에서는 한 겹 흐름일 뿐

울음이 웃음으로 피어날 때처럼

절경은 없다

울음도 절창하면 웃음이 된다

나는 울음을 풍경처럼 입고

피어나는 사람

나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은<sup>1)</sup>

\* 뫼세의 시에서

때때로 내가

한 그루 울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.

1) 뫼세의 시에서